

손학규 “잇단 탈당 안타깝고 송구스러워”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화재 의원의 자유한국당 복당 이후 당원들의 잇단 탈당과 관련해 “당에 대해서 여러가지 고민하는 분들 중 일부는 탈당이나 자유한국당 복당을 생각하는 분이 있는데 안타깝고 송구스런 마음을 금할 수 없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신중한 전 바른미래당 충북지사 후보, 이지현 전 바른미래당 비대위원 등 주요 인사들의 탈당에 대해 이같이 말한 후 “바른미래당이 창당을 한 그 뜻을 우리 당원들이 다시 한 번 생각해주시기를 바란다”고

“당 지지율 연연 말고 창당 뜻 다시 생각해달라”

“유승민, 지금 탈당할 생각 없을 것으로 안다”

당부했다.

그는 “우리는 거대양당 제도의 폐해를 극복을 하고 개혁보수와 합리적 진보를 함께 끌어안고 중도개혁의 길로 가서 우리나라 정치지형, 구조를 바꿔 새 정치를 열어나갈겠다는 뜻으로 창당했다”며 “그 뜻은 엄연히 살아있고 또 새로운 정치에 대한 국민의 기대도 커가고 있다고

말했다.

손 대표는 특히 “우리 당이 그동안 양당 통합을 해서 어려움이 많이 있었지만 당 단합이 착실히 이뤄지고 있다”며 “숫자를 많이 늘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된 지역 위상을 맡기겠다고 해서 지금 하나하나 (선발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당의 여러 위원회도 구성해 전국적

인 활동을 펼쳐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고는 “당장 우리당 지지율이 급속하게 올라가지 않는다고 너무 연연하지 말고 미래를 보고, 대한민국 정치에 내가 중요한 새 정치를 일궈나가는 인사가 되겠다는 사명감을 갖고 임해주길 부탁드립니다”고 거듭 당부했다.

손 대표는 유승민 의원의 탈당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탈당할 생각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다”며 “(유 의원)연락했고 곧 만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분들이 걱정하지만 그렇게 쉽게 움직일 사람들이 아니다. 설사 움직일 생각을 한다고 하더라도 정치인은 자신의 위치, 방향에 대해서 스스로 책임질 줄 알아야 한다”며 “그저 의석이 바른미래당에 있어서 공천받을 수 있을까 다음에 국회의원 될 수 있을까 이런 단기적인 이해관계에만 집착하지 말고 우리 정치의 미래를 보고 나를 희생한다는 생각과 자부심 공지를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신중한 전 후보는 26일 입장문을 내고 “새로운 가능성으로 시작했던 바른미래당은 저의 소신이나 비전, 가치, 철학과는 너무도 크게 결이 어긋나 있었다”며 탈당을 선언했다.

바른미래당의 지방선거 인재영입 1호 입당한 신 전 후보는 박근혜 정부 대통령직속 청년위원장 등을 지낸 후 지난 3월 한국당을 탈당해 바른미래당에 입당했다.

이밖에 류성길 전 의원과 이지현 전 바른정책연구소 부소장 등도 탈당을 선언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국민의례하는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청와대 본관 충무실에서 열린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국기에 경례하고 있다.



26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정치개혁 제1소위를 김종민 소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정개특위, 내달 20일까지 선거제 개혁 합의안 마련

지역대표 비례대표 비율 3대1 이상으로 공감대 형성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는 1월15~20일 제1소위 합의를 만들기로 의견을 모았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비율은 3대1로 하는 방안으로 공감대가 형성됐다.

김종민 정개특위 제1소위 위원장은 26일 국회에서 진행된 회의 후 취재진과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특위 안장이 결의되면 1월15~20일 좁은 1소위 합의안이 나와야 한다”며 “단일안을 목표로 하되 안되면 복수안으로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 날짜를 정한 것은 아니지만 소위원장의 제안에 큰 이견이 없고 공감을 확인했다”면서 “정개특위 합의안이 나와야 하니 (1월20일) 목표로 해서 논의하는 것이다. 그래야만 정치협상을 병행할 수 있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지역대표와 비례대표 비율을 어떻게 할지 논의를 했는데 기본적으로 개혁적인 방향으로 비례성을 높여야 2대1이 바람직하지만, 최대 3대1 이상이 돼야 비례성이 높아질 수 있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적극 검토한다는 합의문 문구와 관련해서는 “여야 간 해석의 이견은 있지만, 자유한국당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적극 검토를 부인하지 않기 때문에 정개특위는 여야 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전제로 해 우리 실정에 맞는 구체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을 목표로 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국당은 연동형 문제점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연동형이 한국에서 어떻게 도입될 수 있는지에 대한 진행 논의에는 같이 참여해달라는 말을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이철호 민주당 의원은 “한국당의 충실하게 논의했으면 좋겠다”며 한국당 소속 의원들의 태도를 문제 삼은 후 회의장을 나간 것으로 알려졌다.

석패물체에 관해서는 구체적인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다만 일부 의원들 사이에서는 석패물체 자체로도 지역주의를 완화할 수 있는 개혁성이 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홍문종 “김무성,朴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불렀다”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 배제 등에 쓴소리

친박계 홍문종 자유한국당 의원은 26일 비박계 김무성 의원을 향해 “김 의원이 얼마 전 모 잡지 인터뷰에서 친박당 없애버릴 수도 있었다”고 말했는데 이걸 계과 발언인데 그냥 넘어가도 되는지 모르겠다”고 작심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중진의원 연합석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이 자신을 ‘신하 처럼 대접했다’고 하는데 대통령을 ‘가시나’라고 부른 김

의원이 언제 대통령 대접을 했느냐”고 지적했다.

그는 “구체적 사건에 대해 이야기하려 하면 수량이 이야기를 할 수 있었지만 이야기 하지 않겠다”며 “(김 의원의 발언이) 우리당에 도움이 되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당을 이끌어가는 비대위원장이 꼭 말을 해달라”고 요청했다.

김 의원은 이날 중순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이 바른정당에 왔다면 친박당은 사라졌을 것”이라고 말

했다. 또 “나는 박근혜를 ‘동지’로 여겼지만 박근혜는 나를 ‘신하’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홍 의원은 최근 현역 의원들 당협위원장 배제 등으로 이뤄진 인적쇄신에 대해서도 쓴소리를 했다. 특히 당협위원장 배제에 이의를 올린 김용태 사무총장의 당직 배제도 강하게 요구했다.

홍 의원은 “저는 좋은 의도를 의심하지 않지만 좋은 의도가 나쁜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간 인명진 위원장, 홍준표 대표, 김병준 위원장을 보면서 지역에 수많은 문제점들을 만 들었다고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잘못하면 다음 국회의원 선거에서 20여명의 의원자리를 잃어버릴 수 있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홍 의원은 “김용태 사무총장이 이번에 용단을 내리셨지만 (사무총장직을) 그만두셔야 한다”며 “지구당위원장 자격이 스스로 안 된다고 말하는 분이 어떻게 사람을 공모하고 인명하는데 본인이 속해 있을 수 있느냐고 일침을 가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이 서울시장 나간다. 지역구를 대전으로 옮기려고 그러다”는 말이 있는데 당협위원장 하나 달랑 내놓으면 진정성을 의심받을 수 밖에 없다”며 “지금 물러나시는 비대위원에서 다음 당협위원장을 임명하느냐 다음 지도부가 할 수 있게 맡겨 달라”고 촉구했다. 김윤호 서울취재본부장

드루킹 “문재인·김경수에 배신당했다”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중형이 구형된 ‘드루킹’ 김도(49)씨가 “문재인 대통령과 김경수 경남도지사에게 배신당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김씨는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 심리로 열린 자신의 컴퓨터 등 장애업무방해 혐의 결심 공판에서 최후진술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2016년 야당 시절 문 대통령과 김 도지사는 우리가 제안하

는 경제시스템에 관심을 보이고 그렇게 하겠다고 했다”며 “그런데 집권하자마자 태도를 180도 바꿔 이전 정부로 돌아가 포퓰리즘만 한다고 했다.

김씨는 “내가 겪은 문 대통령과 김 도지사는 참으로 신의 없는 사람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 친구이자 마지막 비서관이라고 해서 신의가 있다고 믿었지만 우릴 배신했다”며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도 바로잡으려 했지만 저렇게 배반했다”고 토로했다.

야호센터는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062-960-6980
광산구 사일로 340번길 5

광산구

Drawing 이호동